

화순군, 소외 없는 행복한 복지 실현 '순항'

'노인·여성·아동·부모·다문화 가정' 맞춤 5대 핵심 과제 '화순형 24시 어린이집'·'전담 다문화팀' 등 정책 호응 ↑

화순군이 민선 8기 '소외 없는 행복한 복지화순 실현'을 위한 복지정책 추진을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다.

23일 화순군에 따르면 화순 복지의 핵심은 ▲노인 사회참여 확대와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행복한 삶을 위한 여성정책 확대 ▲아동·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지원 ▲아이와 부모가 모두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 ▲다문화가족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 5대 추진과제와 12개 중점 추진사업이다.

강한 노후생활 보장'은 ▲노인일자리 4개 분야 17개 사업 운영 ▲노인복지시설 70개소·경로당 440개소·나드리노인복지관 운영 ▲기초연금 지급·독거노인 돌봄서비스 ▲저소득층 어르신 무료급식 등을 지원하고 있다.

'행복한 삶을 위한 여성정책 확대'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양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 구축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여성 취업활동 지원 ▲여성 이일하기 좋은 기업환경 조성 등이다. 특히 군 직영 체제인 화순여성일하기



화순군이 전국 최초 '자국민 전담 다문화팀'을 운영해 결혼이민여성 등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다. <화순군 제공>

센터는 구인·구직상담, 직업교육훈련, 집단상담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난 2년간 경력단절 여성 1천800여명을 취업과

연계했다. '아동·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지원'은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자치활동 활성화 지원 ▲청소년 교육·놀이·문화 공간 및 프로그램 확대 운영 ▲아동양육시설·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아동급식 지원 ▲아동학대조사 공공화 및 아동보호서비스 지원 등이다.

'아이와 부모가 모두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은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 ▲부모급여(영아수당) ▲어린이집 보육료·운영비 등 지원 ▲화순형 24시간 양육돌봄제 운영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추진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보험료 지원을 통해 보육의 공공성 확보에 매진하고 있다.

특히 구북구 화순군수의 공약사항인 '화순형 24시 어린이집' 2개소 운영은 부모의 야간경계 활동, 질병 등으로 긴급 보육이 필요할 시 시간 단위 보육서비

스를 제공함으로써 부모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

'다양한 가족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은 전국 최초 '자국민 전담 다문화팀' 운영을 통해 다문화가족 방문 상담, 결혼이민자 초기입국자 및 가족센터미 이용자 멘토링 사업, 소수국가 3개국(태국, 몽골, 우즈베키스탄) 결혼이민 여성 통역사 위촉 등 다문화가족을 위한 역량 강화 및 정착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선화 가정협력과장은 "지역의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지원 사업 발굴 및 추진을 통해 모든 군민이 누리는 복지 화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민들도 군의 정책에 적극 동참해 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최순=이병철 기자

곡성군민 행복드림팀, 효자노릇 '톡톡'

2인1조...11개 읍·면 순회 소통

곡성군이 추진 중인 '군민 행복드림팀' 활동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3일 곡성군에 따르면 11개 읍·면별 공무원 2인1조로 구성된 이 팀은 주민들의 일상에 직접 찾아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소소한 행복을 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사진>



고마운데 편지까지 전해주시니 고맙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 밖에도 행복드림팀은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지난 6월에는 찾아가는 콘서트 '꼭잡콘'을 개최했다. 가수 진시몬, 광창선, 로미나가 11개 읍·면을 순회하며 공연을 펼쳐 평소 문화생활을 즐기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했다.

곡성군 관계자는 "행복드림팀 활동이 주민들의 정서적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일상에 의미 있는 행복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복드림팀은 연말까지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며, 오는 11월에는 마을 어르신들의 인생 사진을 담은 '행복 화보' 촬영도 계획하고 있다. /곡성=김영희 기자

여수시, 대한민국 솔라리그 '최우수' 선정

여수석유화학 기업 RE100 전환 등 정책 높은 평가

여수시는 23일 "제6회 대한민국 솔라리그" 정책성과 부문 최우수상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솔라리그는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와 22개 기초지자체, 공공·민간 기관 등을 대상으로 태양광 발전 보급 성과를 겨루는 대회다.

여수시는 '공공부지 태양광 설치', '여수석유화학 기업들의 RE100(재생에너지) 전환' 등 정책 성과를 높게 인정받아 수상 영예를 안았다.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시상하고 있으며, 오는 8월20일 오후 2시 서울 LW컨벤션센터에서 시상식이 개최된다.

여수시는 "공공부지 태양광 설치", "여수석유화학 기업들의 RE100(재생에너지) 전환" 등 정책 성과를 높게 인정받아 수상 영예를 안았다.

현재 민원 발생 여지가 적고 부지 활용 계획이 없는 공공건축물 옥상 위주로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 올 하반기부터는 '여수시민 햇빛펀드' 방식으로 시민 누구나 가입해 발생이익을 공유 받을 수 있는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이번이 첫 참가이고 공공태양광 사업이 초기 단계인 만큼 성과를 다 보여주기 못해 아쉬웠다"며 "올 하반기에 예정된 정책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내년에는 더 큰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여수=김진선 기자

보성군, 군수 직통 '소통600, 문자 한통' 서비스 개시

주민 불편 최소화·민원 상담 서비스 질 향상 기대

보성군이 군민과 직접 소통하는 군수 직통 문자 서비스를 개시했다.

23일 보성군에 따르면 지난 22일부터 군민들의 작은 목소리까지 군정에 반영하기 위해 군수 직통 문자 전용 휴대전화 서비스(010-5438-0600) '소통600, 문자 한통'을 운영한다.

'소통600, 문자 한통' 서비스는 군수가 직접 군민들의 불편과 고충, 건의사항 등을

을 청취해 민원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접수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한 소통 창구다. 보성군민들은 소관부서나 담당자를 확인할 필요 없이 평일 야간, 주말을 포함해 언제든지 직통 문자로 불편사항을 전달할 수 있다.

접수된 문자 중 간단한 사항은 즉시 조치하고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문자 혹은 우선으로 2일 내 평일 오전 9시

부터 오후 6시까지 처리되며, 주말(금요일 오후 6시부터 일요일) 건은 오는 평일에 안내된다. 보성군은 이번 소통 창구 개시를 통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민원 상담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군민들과 가장 빠르게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했다"며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소통 행정을 펼치고 지역에 관련된 작은 일이라도 직접 챙기겠다"고 말했다. /보성=임병연 기자

장성군, 신소득 작목 레몬 육성 집중

도의회 농수산위 레몬 재배단지 방문...다각도 지원 검토

장성군은 "최근 군이 조성한 대규모 레몬 재배단지에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위원들이 방문했다"고 23일 밝혔다.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위원들은 삼서면 삼계리 소재 레몬 재배농가를 찾아 현지 농업인들로부터 애로 및 건의사항을 듣고, 아열대작물 재배 현장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위원들은 레몬 수확 전인 10월부터 전남도 공식 쇼핑몰 '남도장터'에 품목을 사전 등록해 출하 즉시 판매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 한국산 레몬을 찾는 수요가 큰 일본 시장 진출을 타진하고, 재배 역량 강화를 위한 농가 교육·연수 추진도 검토

하기로 했다. 앞서 장성군은 '신소득 원예특단지 조성사업' 공모 선정으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2년간 도·군비 및 자부담 포함 총 사업비 35억여원을 투입해 레몬 재배단지를 조성했다. /장성=김문태 기자

장성군 레몬 재배단지는 사업 추진 첫해 2만4천156㎡, 2년차에 9천278㎡까지 재배 면적을 확장하며 총 3만3천434㎡ 규모를 갖추는 데 성공했다. 이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신소득 작목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장성 레몬이 '과일의 도시' 군의 대표 아열대 작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앞으로 꾸준한 지원과 협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장흥군, 제61회 대통령기 전국장사씨름대회 성료

선수·관람객 등 1천500여명 참여...지역경제 활성화 보탬

장흥군은 23일 "지난 16일부터 22일까지 7일간 장흥실내체육관에서 제61회 대통령기 전국장사씨름대회를 개최해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초·중·고, 대학, 여성, 일반부로 나눠 개인전 59팀(230명), 단

체인 78팀(796명)으로 총 137팀 1천100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기량을 펼쳤다.

장흥에서 두 번째로 열린 올해 대통령기 전국장사씨름대회는 선수단을 포함해 관람객 1천500여명이 장흥군에서 숙식을 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보

탬이 됐다. 한편, 장흥군은 올해 상반기 동안 10여개의 전국대회를 유치하며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하반기에는 시니어라지볼, 탁구, 배드민턴, 펜싱, 배구 전국대회 등으로 앞으로도 스포츠마케팅 정책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예정이다. /장흥=노홍록 기자



제61회 대통령기 전국장사씨름대회가 지난 16일부터 22일까지 장흥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가운데 참가 선수들이 한판 승부를 벌이고 있다. <장흥군 제공>

광양시, '운동주 테마관광상품' 인센티브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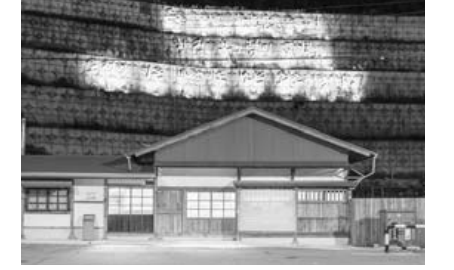
1인당 15만원 지급...광양시 숙박·음식점 이용 조건부

광양시가 광양, 중국, 일본 등 운동주 여행객을 유치하기 위해 광양에서 1박 이상 숙박하고 관광 소재의 식당에서 두 번 이상의 식사를 해야 한다. 정병욱 가옥(사진)은 여행 일정 안에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하며 국외에 있는 운동주 관련 관광지 1곳 이상의 방문이 필요하다.

단, 여행업체는 관광진흥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여행업체여야 하며 개별 관광객의 경우 팀 대표자는 만 18세 이상으로, 구성원 모두 관의 거주자여야 한다. 관광객이 여행업체가 운영하는 운동주 테마 관광상품을 이용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여행자(업체)가 지원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광양에서 1박 이상 숙박하고 관광 소재의 식당에서 두 번 이상의 식사를 해야 한다. 정병욱 가옥(사진)은 여행 일정 안에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하며 국외에 있는 운동주 관련 관광지 1곳 이상의 방문이 필요하다.

국의 관광지로는 중국의 ▲운동주 생가 ▲운동주 묘 ▲명동학교 ▲용정중학교 등이며 일본은 ▲릿교대학 ▲도시사대학 ▲아마가세 구름다리 ▲교토 하숙집터 등이다. 신청은 사전 계획서, 여행일정표 등을 여행 개시일 10일 전까지 광양시청 관광과에 직접 제출하거나 이메일로



제출하고 재정지원 사항 등을 협의해야 한다. 지원금 지급 신청 기간은 여행종료 일로부터 30일 이내이며 신청서를 접수한 다음 달 25일 이내에 지원금을 받게 된다. 김성수 관광과장은 "관광도시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운동주 테마 관광상품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며 "여행도 즐기고 지원금도 받는 일석이조의 여행을 계획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양=양홍열 기자